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오늘 1, 2, 3, 4부 예배를 추수감사예배로 드려
지난 금요일 추수감사 '96 임마누엘 찬양의 밤으로 모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1, 2, 3, 4부 예배를 추수감사예배로 드린다. 또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자체 내에서 축하행사를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지난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연세대 한총련 사건과 잠수함 공비 납치 사건은 온 나라 안팎을 긴장으로 물고 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젠 그 일도 마무리지어졌다.

이제 금년은 최대의 풍작이라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과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이다.

어려움과 시련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통해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개혁을 굳건히 하고, 교

회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되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에 자성의 기회가 되고 각 개인은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기회가 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갈래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임마누엘찬양대 주관으로 감사절을 축하하며 '96 임마누엘 찬양의 밤' 시간을 가지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올 한해의 마무리까지 연결시켜야 하겠다.

제4차 성찬식

금년들어 네번째로 실시하는 성찬식이 오는 11월 24일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에 실시된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와 회개와 결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임직예배 교회는 11월 13일(수) 오후 7시 수요2부 예배시에 제29대 장로·제10대 집사 장립 및 제38대 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번에 장립을 받은 장로는 10명, 집사는 20명, 취임한 권사는 65명으로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되었으며 6개월간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이날 장립 및 취임하게 되었다. 총회장 김준규 목사를 비롯해 동서울노회의 여러 목사들이 각기 순서를 맡아 시종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졌다. 교회는 이처럼 새로운 일꾼들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6차 학습 및 세례식

금년들어 여섯번째로 실시하는 학습, 세례식이 오는 11월 22일(금)에 실시된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까지 교구 당

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아래 일정에 따르면 된다.

· 예비교육과 문답 - 2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
· 학습, 세례식 - 22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 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시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12월에 <계간충현> 겨울호를 준비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판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 교회 사랑, 교회 자랑 - 교회생활을 하며 경험한 '교회 사랑, 교회 자랑'의 내용들로 ① 내 교구 자랑, ② 부서 자랑, ③ 나는 이래서 충현교회가 좋다, ④ 기타

2. 원고마감 / ① 주간충현은 마감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② <계간충현> 원고는 11월 27일(수)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현금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1996년 12월 1일(주일)
· 접수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사무국(총무과),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 접수종류: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현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교위원회 사무실(전화 552-8200 교관 357번)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1-11)

하 나님의 진실한 종 다윗 왕이 연로 한 때에 평생 자기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악한 세상에서 신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1. 참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37:1-8)

(1) 악한 자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을 버리고 죄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을 내거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죄 있는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 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악의 조작자입니다. 권세가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악을 행할 것을 계획합니다. 둘째, 악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남이 써놓은 각본대로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돈 몇 푼 받고 의인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셋째, 악에 물들여가는 사람입니다. 친구따라, 직장따라, 형편따라 신앙생활이 틀려지는 사람은 악에 물들기 쉬운 사람입니다. 넷째, 악의 사냥꾼입니다. 자기의 들보같은 잘못은 거짓말 뒤에 숨겨 놓고 남의 티같은 잘못은 현미경으로 발견해서 만천하에 광고하려는 사람입니다. 특히 당파싸움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다섯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분노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옳고 악을 행하는 사람만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 역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일의 안팎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솔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잊어버린 물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있다가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포악해져서 인격이 병들고 나중에는 몸매까지 병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분노하는 자는 나중에는 원수에게, 악마에게 이용된 당합니다. 여섯째, 자기의 책임만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땀을 쏟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발걸음입니다. 일곱째, 악인을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저 못된 사람이 시간만 되면 줄지에 멸망 당할 것야,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 바보같은 사람은 잠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하면서 심판받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정성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2)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공연한 억울함도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

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 자기가 칭찬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노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얼마 못가서 꺾어집니다. 또 인간의 결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도 얼마 못가서 꺾어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만이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대로만 행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지키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먹을 것을 먹어야 살고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만 밥을 먹고 얼마 있으면 또 배가 고프고 힘이 빠 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진정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영혼이 살고, 양심이 병들지 않고, 육신도 튼튼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질을 식물(食物)로 삼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사람 앞에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3)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참아 기다리며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 몇 만원보다 주시는 부모님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모든 물질, 모든 보배가 귀합니다. 그러나 지으신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기 원하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돈보다 부모를 좋아하고 돈보다 남편을 아내를 좋아하고 돈보다 지식을 좋아하고 돈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돈보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고 압박에도 비굴해지지 않게 됩니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뻐합니다. 돈은 웃도 되고, 돈은 자동차도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뒷배라지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이 질병의 일부분을 해결하지만 다 해결할 수 없고 죄악의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거의 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돈은 소원을 다 못이루지만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지고 납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데 무엇이 모자랄까요. 그러

선을 행하면서 조심하는 사람은 욕심도 참고 분한 것도 참고 고생도 참아야 합니다. 악인의 때는 잠깐입니다. 악인을 보내 불쌍히 여기고 울며 기도해 주는 것이 신자의 발걸음입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므로 인간 최고의 소원 성취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4)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사람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랑까지 베풀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깁시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5)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말 대답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되 며칠 못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악행하는 자를 위해서 울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2. 인내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합니까

아침 해는 불끈 솟아 오르지만 그림자가 크고 저녁 해도 노을이 예쁘지만 역시 그림자가 큼니다. 그러나 정오의 햇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정오의 빛 같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근심이 섞이지 않아 그림자가 없는 빛 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림자가 없는 소원 성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는 여호와께 길을 맡기므로 근심이 없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3.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37:9-11)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임" 하

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모두 잘 살 것 같아도 강한 사람은 얼마 못가서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모두 점령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화를 내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일소 일소 일노 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말도 있습니다. 둘째, 자손이 창대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의 아들 딸들이 잘 됩니다. 셋째, 사람 앞에 인심을 얻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할 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인심을 얻습니다. 넷째, 재산이 생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 재산을 영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의 흔들림이 없는 온유한 자는 위의 네 가지 복과 아울러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와 화목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육신에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영적인 힘과 인간적인 힘이 생기므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조심하는 사람은 욕심도 참고 분한 것도 참고 고생도 참아야 합니다. 악인의 때는 잠깐입니다. 악인을 보내 불쌍히 여기고 울며 기도해 주는 것이 신자의 발걸음입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하나님 앞에 알을 열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생명의 편지를 맡기고 오직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감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와 정신

최영찬

(목사, 8교구 · 중동2부 지도, 교육연구소 부지도)

추수감사절은 카톨릭을 반대하던 유럽의 청교도들이 카톨릭이 지켰던 크리스마스 대신 추수감사절을 지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플리머드의 정착지에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해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온갖 음식을 차려 놓고 일주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추수감사절이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링컨 대통령 당시인 1841년에 11월 4째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 날을 국가의 공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열린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석 장로라는 분이 제의하여, 한국 교회에서도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에서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 다. 그러나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을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수요일보다 주일이

우리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났다는 견해들이 나오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추수 감사 절기는 유

럽이나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 3500년 전에 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렀고, 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로 이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추수 감사 절기가 그 본래 정해진 달과 때를 유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날을 정해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아보면서 오늘날

첫째로,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추수를 마치고, 그들의 공간이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날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각자 그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따라서 분수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 역사가(歷史家)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길마다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은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 그들의 손에는 올리브, 대추, 야자, 석류, 밀, 보리, 그리고 박달기, 또는 호두 등의 제물이 있었다. 부자들은 많은 예물을 마차에 실어 가져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보따리 짚을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난 1년간 주신 축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의 첫날

에 자기 일을 쉬면서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칠일 동안 매일 정해진 수의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 죄를 씻고, 새로이 헌신하게 하셨으며, 율법 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7일 동안 일을 쉬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들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했으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그 동안 멀리했던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지난해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영적인 부흥의 기간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도 모두 참여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고 그 물질로 각 성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일년간 돌아보지 못했던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으며,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에 천막 속에서 7일간 거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 천막에 거하던 40년 생활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막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추수감사절에 부치는 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 위에 내려지고
바치는 손길손길 드리는 재물
가난도 모자람 없고 부자도 적지 않게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드려
한 묶음의 기도, 국화꽃 피우는 감사.

지난 해도 감사 올해도 감사
요셉의 칠년 대풍 주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사
무게 만큼의 담은 정성
우리의 빈 그릇에 채워드리는 감사.

세상 부귀영화 많아질수록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아
한 시대를 허물어뜨리는 돈
땅에 숨기고 묻고 묻고 또 묻어도
썩어 없어지며 도적을 당하리.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기쁨
마음 마음 모아 모아 하나님께 두며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고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고 쌓으리.

알곡과 축정이 구별해 드리는
진실과 가식 빛으로 가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모든 정성 주님께 다 바치는
하늘에서 주신 감사 축복의 감사.

김문섭(집사, 초동3부 교사)

새로운 일꾼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여기에 기도의 종들을 세웁니다.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용부짚을
주님의 신실한 기도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에 성실한 청지기들을 세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 바쳐 일할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종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여기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곡식 익어 기다리는 마지막 추수밭에 일할
주님의 충성스런 종들에게
힘치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우신 종들을 튼튼히 붙잡아 주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부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게 하옵소서.

박철규(집사, 중동2부 부감)

토막소식

▶ 유아부, 초등2부, 5부, 중등1부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린 학생들이 과일과 곡물을 준비하여 춘천소년원, 노인정, 양로원, 어린이양의 집(정신지체아 수용시설)을 찾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다.

▶ 초등3부에서는 오늘 가족찬양부르기대회를 열어 찬양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예정이다.

▶ 중등1부에서는 오늘을 충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절은 새 친구와 함께 감사'라는 주제 아래 장기 결석생,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하여 찬양,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된다.

▶ 고등부에서는 오늘 분반공부 후 봉사관 마르다홀에서 성극부 정기공연을 갖는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초청집회를 갖는다.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을 1명 이상씩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교사와 회원들이 간증을 발표하는 등 감사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소석장학회 이사 모임

소석장학회 이사들이 아래와 같이 모임을 갖고 1996년도 하반기 보고와 장학회 내의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 일시: 11월21일(목, 오후 7시)
- 장소: 칼빈홀

▶ 탁아부에서는 오는 24일 교사훈련 및 기도회를 실시한다.

▶ 제2교구(교구장 김의철 장로)는 연초부터 강조하며 함께 해 온 성경통신 및 성경 다독에 대한 시상식을 오늘 교구모임 시간에 갖는다. 성경통신상을 받는 사람은 170명, 다독상은 30명으로 1년 동안 16독 1명, 9독 1명, 4독 1명, 1-3독 27명이다.

▶ 영어교육부에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예배와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식사 및 선물 증정 등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면 전도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꼭 초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 입대자에게 성탄선물을 보냅니다

군전도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 선물을 발송하여 군 입대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 중 군 복무자 및 입대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입대자 및 복무자의 주소를 군전도회실(본당 108호, 전화 552-8200 교환 286)로 알려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부에서 고3 졸업생을 위한 '97 고3 여는 마당

대학부에서는 오는 11월 22일(금) 오후 6시에 메추라기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97 고3 여는 마당'을 실시한다.

앞으로의 진로 결정, 전공 선택 등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고3학생들에게 선배로서의 도움을 주고 대학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도하는 즐거움

김경숙

(집사, 새가족부 교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렐 33:3)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이 예수 닮은 삶이어야 하기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중의 하루를 구별하여 충현기도원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라 하시며 기도의 명령을 하신 주님.

화요일마다 대형버스가 교회 마당에 준비되어 있고 10시에 출발하여 기도원까지의 소요시간 1시간 늘 같은 길을 달릴지라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들, 새싹이 돋는 생동감 넘치는 봄의 계절, 녹음이 우거진 여름, 노랗게 물든 단풍의 계절 가을, 흰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이는 겨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는 찬송이 절로 나오며 기도의 동산에 도착하기 전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시작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셨기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윤종일 목사님을 통해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 안고 온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와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곳에 있음을 화요일 아침과 금요일 철야 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인 충현기도원에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오기를 기도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충현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아 래-

1. 봉사영역
 - (1) 작업훈련실
 - ① 작업훈련 보조
 - ②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 ③ 기초학습 지도(국어, 산수)
 - (2) 기타 복지관 사업 관련 분야
2. 봉사기간: 주1회 3시간 이상
3. 모집기간: 1996년 11-12월
4. 문의처: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564-4885, 562-0548)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콩 김은태 선교사 ▶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해 더욱 더 하나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저회 부부가 되게 하소서.

2.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주일학교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3. 우두각지역의 영혼들에게 주의 큰 빛이 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홍콩과 중국까지 동일한 역사가 확장되어 가게 하소서.

4. 막레이호 병원, 딱폭 노인원, 왕평 노인원 선교 사역을 통해 병든 자와 노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수고함을 인해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맘뉘려 충성하신 홍콩단기선교팀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와 교회가 받은 격려와 감동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욱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나누고 싶은 은혜와 간증을, 그리고 결과들은 잘 정리하여 소식을 드리기 원하며, 여러분이 저희들을 잊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신다는(참고 말씀 기쁜) 소식을 접하고, 저희 부부는 또 한번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감사하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했습니다.

부탁하신 것을 따라 몇 가지 기도의

◀ 선교지에 보내는 편지 ▶

김은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곳 한국은 선선한 바람과 키 재기 하는 코스모스가 활짝 핀 가을입니다. 그곳 홍콩은 어떤 날씨가겠는지 궁금합니다. 아참! 제 소개가 좀 늦었군요. 저는 충현교회 교회학교 초등5부 소망8반 김희진이예요. 저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김은태 선교사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진 못하지만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구요. 전 요즘 조금 믿음이 약해졌어요. 예전엔 기도도 열심히 하였는데 요즘은 기도도 자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밤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과 이삭, 성약이 오빠도 잘 있나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홍콩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저도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만 줄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1996년 9월 15일 김희진 올림

5. 매월 둘째 월요일 본 교회에서 모이는 홍콩과 중국 내지 선교사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6. 홍콩으로 와서 저희와 동역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미션홈(Mission Home)이 더욱 유익하게 선교를 위해 쓰이게 하소서.

7.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로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많이 맺히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홍콩 우두각에서
김은태, 서인숙 올림